朝鮮日報

發行 編輯 印刷人 方應謨 … 서울市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 月定價 二十六圓

新年을 맞으면서

一

원통이 흥다。虛僞와不義、過誤와憤怒와不聰明을함께 불살러버리고 그 灰燼속에서 밝아오는 집 합 새아츰이다 偉大할손 民族萬代의새며를 말연할이해이아츰이여! 우리는 이聖스러운 아츰에 萬福이 있어지이다 우리는 誠心으로 祝福한다 이아츰에 萬福이 있어지이다 祝福하자 이어 祝福할 자리에서 祝福이 있어지이다 이祝福의 뜻을 재깨닫지 못한사람은 없는가 未參者로 이며잡이에서는 안된다 이祝福의 行列에 한사람의 落伍者가 있어서는 안된다 建國運動의 創造的意義가 있다 여기에 建國의 目標가있고 이룩하고 이재머우에서 누구나 누구든 재미를 기면서 일할수 있고 누구나 즐기면서 살갈수있어 야 하고 다함께 새날을 祝福할수 있어야한다

우리가 目標하는 政府는 일은바 民主主義國家 大體民主主義國家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백성의 나라다 백성을 위하여 또 백성스스로가 다스려가는 나라가 民主主義國家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重要한 것은 백성이라는 말이다 누구가 백성이냐 한領土、한主權아래 있는 사람은 모다 백성이다 그러면 오늘날까지의 民主主義는 果然 그 백성全體를 爲하는 것이었든가 혹시 個人이 있어 爲하여고 했을지 몰은다 그러나 結果는 지극히 적은 한部分의 사람을 爲하는데 지내지 못했다 백성은 完全히 出發의 錯誤에서 가 실에 있어 多大數의 백성이 버림을 받어 자기들의 民主主義가 其實은 백성은 神의 地位로부터 救援을 받어 서 革命은 자람을 神과 人民의 主權을 찾는데 成功하였다 個性의 解放과 人民의 主權을 찾는 데 位는 神의 종에서 다시 一部特殊한 사람의 地位로 轉落하고 만 것이다 여기에 近代政治思潮의 變革이 約束되었고 民主主義의 飛躍이 要請되는 所以가 있었다 오늘날 우리의 建國路線이 指向하는 바는 正히 이 點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있고서는 새 백성의 祝福할 수도 없는 것이오 또한 만대의 祝福할 만한 것은 안인 것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基礎를 爲하여는 封建思想、封建文化、舊世界觀을 勇氣있게 脫殼하는 理由가 있다 우리 民衆이 封建制度의 淸算을 絶叫하는 것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建國은 舊文化의 改革으로부터 出發해야 한다 우리의 煩悶이 있으며 軍政이 이것을 充分히 理解치 못한 데 民衆의 疑訝가 있다 이 날이 아츰 우리는 다시 한번 建國路線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어느 길이 참으로 백성의 나라를 區別해야 한다 그리고 이룩하는 길인지를 똑바로 니어든 勇敢히 淸算해야 하고 백성을 위하는 것 이오로 排擊하지 안으면 안된다 그것을 이 계盟할 것은 그것재가 眞實로 백성의 아츰에 學族的으로 全民族의 力量을 集中시키자 는 것이다。

二

그런데 우리의 建國에 있어 가장 삼가야 할 것은 그 非科學性이다 漠然히 나라를 爲하고 民族을 爲한다거나 백성을 爲한 백성의 나라를 指向한다고 해도 여기에는 實로 嚴密한 科學的判斷과 科學的인 方法이 없어가지고는 到

底히 所期의 目的을 일을수 없는것임을 서는 안된다 均等主義는 이科學的基礎에서 선것이 아니면 不均等의 結果에 까지 지안을수없는것。 또 다시 우리의 不動의 建國路線이여야 할 것이다 하물며 人道主義나 博愛主義로써 될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社會發展의 科學的 法則이 있음을 明察해야 할것이오 社會發展의 段階性을 正確히 把握해야 할것이 다 여기에 社會發展의 段階規定이 必要한 所以가 있다 萬一 이것을 그 段階規定이 없이 우리의 建國運動은 混亂을 免치 못할것이 날 우리의 建國運動이 理論과 實踐에 恒常間隙이 생기는 것은 現段階의 科學的 規定이 不足하였거나 그 實踐에 不足이 있다는 證據일수 밖에 없으 며 이것이 또한 오늘날 混亂의 原因인 것이다 우리는 함부로 相對方을 비워하고 말 끄 미 確實치 못한 情報로써 남을 中傷하고 따 말 끄 미 를 따 가 지 고 남을 辱說하는 代身 좀더 冷情히 科學的으로 現社會、現情勢、現國際關係를 분析하여 이 境遇에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正確히 捕捉함으로써 建國運動을 바른길로 引導하고 民衆의 力量을 이리로 集結하지 안으면

三

우리의 建國運動은 그 目標가 백성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고 政治의 科學化가 絶對로 必要한 前提條件이어야 할 것이나 이 아츰에 다시 한번 强調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過去의 經驗에 비취어 그 誠實性問題이다 誠實치 못한 朝鮮사람 三十六年間의 最大의 罪惡이 이 最大의 日帝殘 한 人間性問題 생각하거니와 이 爲하야 백성을 爲 澤가 만든 것이라 「거즛」이라 하고 보지 하는 者이다 그리고 또한 民主主義 구나 다 백성의 나 마의 人間的基礎는 여 한 見解에 誠實性에 있는 것이 다 라고 생각한다 萬一 이 民主主義國家를 이루어 다면 우리는 오늘날 要素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않일까 는 데 가장 남은 要素를 結을 받을 다면서부터 을 뿐 일이나 우리는

運動에 있어서 그 判斷과 行動이 오늘날 우리의 政治 안 있음에서 오는 莫大한 被害를 當하고 있는 것이 이 해에는 政治를 科學하는 해로 明誓하자는 것이 그 를 재의 要請이다。

안과 집밖에서 取할 態度 이 해야 했다。 이명 이 오 年歲月을 지나는 동안 이 느 못 이 우리에게 는 一部이 건하지만 두 면 한 自己를 직 힐 줄 모 그 때 그 때의 形勢를 따 라 눈 치 를 보 고 만、 살피는 남 분 習性을 지니게 되 었 다 民族 의 名譽에 걸고 이와 같은 남 분 殘滓를 한 時刻 에 淸掃해야 할 것은 勿論이거니와 一個 個人行動이 아니고 우리는 全體的인 政治關係에 면 不誠實이 있는 限 우 리 는 眞實한 建國運動 에 文化運動이 가 질 수 없는 것이 다 우리는 事實과 人 나 무 엇 도 아 무 것 도 誠實 한 努力에서 만 期待 할 수 類 文 化 는 오 직 誠 實 로 써 일 수 없 다 는 것 이 다 있 음 을 기 꺼 이 재 닷 지 않 으 면 안 될 것 이 다 시 한 번 디는 이 아 츰 에 게 不 誠 實 은 없 는 가 돌 아 살 펴 야 할 것 이 다 建 國 運 動 은 오 직 誠 實 로 그 것 이 이 아 츰 에 盟 誓 할 그 것 재 要 請 이 다 建 國 目 標 를 同 胞 여 이 嚴 肅 한 瞬 間 、 우 리 는 그 로 써 그 로 써 建 國 目 標 로 그 로 치 지 말 고 또 그 方 法 을 그 로 치 지 말 고 오 직 誠 實 로 一 致 團 結 하 여 民 族 的 課 業 을 遂 行 하 는 名 譽 를 가 지 지 않 으 려 는 가 。

크게 가져야 할 것은 定理이다▲解放第三年은 果然 우리에게 獨立을 가져 올것이냐? 오늘의 破局的 產業經濟를 마침내 破綻 의 危境에 까지 하고 야 말것이냐? 이를 누구 에게 뭇고 누구에게 어 떻게 손을 벌리고 救助 를 請해야 할 것인가 없다 ▲그러나 오늘 新正을 맞이하는 날이 나 不 過한 逆境에 處해 있을 스 록 다 시 금 奮 發 치 안 을 수 없 는 것 은 우 리 가 當 面 하 고 있 는 課 題 가 歷 史 的 인 너 머 도 큰 것 이 기 때 문 이 다 幾千年의 우리 歷史를 더 듬 어 본 때 오 늘 과 가 튼 國 難 特 히 兵 亂 은 決 코 한 두 번 이 아 니 엇 다 ▲ 그 때 그 대 의 政 府 要 路 와 指 導 階 級 에 는 苦 心 도 만 헛 겟 거 니 와 그 失 敗 醜 態 는 成 功 보 다 도 더 많 었 다 고 할 것 이 나 그 보 다 도 壯 한 것 은 許 多 한 民 族 的 困 厄 가 운 데 서 强 韌 한 民 族 意 識 에 서 自 己 民 族 과 그 文 化 를 維 持 發 展 식 혀 온 이 民 族 이 民 衆 의 힘 이 다 ▲ 오 늘 의 指 導 者 들 을 어 떠 게 評 할 까 오 늘 의 分 裂 은 누 구 의 分 裂 인 가 이 늘 後 日 의 史 家 가 冷 酷 한 審 判 을 내 디 려 니 와 우 리 는 過 去 의 歷 史 를 밉 는 同 時 에 未 來 의 歷 史 에 또 한 期 待 코 지 한 다 即 우 리 民 族 、 우 리 民 衆 의 奮 發 이 다 解 放 第 三 年 의 새 歷 史 도 여 기 서 비 롯 할 것 을 바 람 은 筆 者 뿐 의 念 願 이 아 닐 것 이 다

民族的自覺痛感

新年에 際하야 金九

되디다고 헛꿈을 꾸고 있엇기 때문에 지난 一年동안 아무런 成果도 없이 貴重한 時間만 虛送한것이다 지금 世界의 各大國들은 弱少民族을 解放식히고 그들을 援助育成하려고 하는 마운 뜻을 보이고 있오나 우리 民族은 不幸하게도 그 뜻과 反對의 것 即 피로움을 받고 있는 것이 우 보다 單一民族인 우리가 一千萬 料外로 三八線 이란 壓縮帶로 因하야 窒息하고 있지 않는가? 北朝鮮에서 南朝鮮에 對한 政策을 본다든지

서 國內事情을 잘 몰으고 오랫동안 海外生活에 있다가 지난 一年동안 國內生活에서 體驗하였고 의 國內生活에서 體驗한 것을 簡單히 要約 해서 말한다면 四十年 間의 奴隸生活에서 前例 없는 深刻한 民族的 苦難 과 悲哀를 經驗한 우리 民族이 아직도 民族的 自覺이 不足하다는 것이 남의 德分이 무엇이 다

現在南朝鮮에서 北朝鮮에 對한 對策을 보더라도 最近 한 例를 들면 發布된 法令 百二十七號로 對 北朝鮮米穀輸出禁止令 같은 것은 實로 外國에 對한 法令과 같은 것이다 以南에 있는 子弟가 以北 에 있는 父母를 供養할 수 없게 되니 父母와 兄弟 가 餓死해도 束手無策으로 도 보고만 있어야 할 것 이란 말인가? 우리는 재해를 마저서 國際公約 에서 解決해 줄것만을 苦待치 말고 우리의 힘 으로 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自覺 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學族的 것이다 이 自覺이 있은 후에 인 우리에게 曙光이 라야 다 빛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痛切히 느껴야 한다

學族的念願

達成에 努力

하ー지中將의 新年멧세ー지

一九四七年新年에 際하야 本官은 朝鮮民衆에게 幸福과 繁榮을 비오며 美國民은 朝鮮國民의 民主建設하 主義統一國家를 建設하 라는 學族的念願을 達成식히기 爲하야 努力할 것을 거듭 盟誓하는 바입니다 美軍司令官 陸軍中將 죤·알·하ー지

健實한 發展을 圖謀

新年마저 美軍政長官代理

헬믹代將멧세ー지

朝鮮國民과 함께 一九四七年 新年을 마지함을 나는 크게 光榮으로 생각한다 過去一年을 回顧하건대 軍政下에 있어 食糧問題、罹災民問題、戰災民問題、援護 …

事件等 物情騷然한 가운데 지냈으나 이는 새로운 朝鮮을 建設하는 過程에 있어서 한개 陣痛期的 苦難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立法議院의 開院 漸次的 … 行政權移讓의 建設的인 途程은 將次 朝鮮人의 自治政府를 形成하는 한 階段 으로서 朝鮮國民의 團結과 努力如何에 따라 朝鮮은 새로운 建設期로 드러갈 것이다 美軍政은 朝鮮의 利益을 爲하여 하로 밧비 各部門에 있어서 健實한 發展을 圖謀하도록 一層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美軍軍政長官代理 陸軍代將 헬믹

院法草案二讀會完了

副議長에 尹崔兩氏被選

三十日 立議의 續報

三十日午後의 立議第一回第六次 會議는 一時早 (事務總長兼任) 諸氏를 任命發表하였다 書長에 李相壽 副處長에 蘇貞植 書記長에 金奎弘 金奎植議長으로부터 秘 繼續會하야 院法逐條討議가 快速調로 進行되어 五時二十分에 全文十三章九十七條의 院法草案第二讀會를 完了하였다 그 러고 同會議에서는 院法에 依한 副議長二名을 選擧한 結果 尹琦燮 崔東旿兩議員이 被任되였고 …

社勞黨新出發

死守黨員만으로

三十日午前十時 社會勞働黨에서는 中央常任委員會와 政治委員會를 열고 委病度 李友狄 朱 … 鄭 禧永 崔岳 河弼源 申 …

中央委員會 二十五日의 中委會에서 多數決에 依하여 解體를 抑壓한 것은 旣報와 같은데 結局當時 解體를 主張하든 側이 脫黨의 氣勢를 보이게 되며 이에 對한 態度로서 한것이매 …

鄭 … 白元欽 尹熙晋 溫 安鶴允 黃白水氏 派를 除名處分했던 等 十四名의 中央委員과 朴鳳愚 黃應源兩氏의 中 央委員候補를 除名處分했던 다 이것은 即從來同黨에 不利한 北朝鮮勞働黨의 決 定書가 있은後、委員長 副 委員長의 隱退와 脫黨等으로 堅黨員의 招來하여 一黨을 死守할 黨員만으로 純粹히 同 內의 動搖를 招來하여 社會勞働黨도 時解體說이 有力하게 擡頭 新出發을 하게 되였다

原子管理方策

管理委員會서可決

【 ワシントン 卅一日發 AP合同】 原子力管理 委員會는 卅日夜十對零 (波蘭과蘇聯은棄權) 으 로 原子力管理方策을 可 決하였는데 이에 依하면 安保의 常任理事國은 原 子力管理에 關하야서는 否 認權行使를 容認치 않기 로 되였다

蘇聯代表크로미코氏

原子管理案에 重要聲明

【紐育卅日發AP合同】 蘇新外相代理「안드레이 아·크로미코」氏는 U N原子力管理委員會에 重 大한 關係가 있으리라고 豫測되는 蘇聯側政策을 發表할것으로 豫測되는 데 氏는 卅一日安全保障 理事會에 軍縮案促進에 對한 蘇聯의 要請을 主張 하기 爲하야 重大한 演說 을 한데이라한다 그런데 「크로미코」氏는 現在까지 原子力管 理委員會及安全保障理事 會의 蘇代表委員이엿는 데 今般外相代理로 任命 되것은 兩會의討議가 最 後的段階에 이르러할 때 에 受命한것이며 한편 莫府放送에 依하면 「크로 미코」氏는 昨廿九日第 五代外相代理로 任命되 었음을 報道하였다

合同】中央政府外交部 代辯人은 大連港問題 에 關하여 다음과 같은 見解를 發表하였다 中蘇條約解釋에 있어서 中 國政府는 對日媾和條約 이 調印될때까지 蘇軍 의 大連港駐屯을 許容 하는 것으로는 보지않는 다 中國政府는 中蘇兩 國協同에 依한 對日本間 의 戰爭狀態가 存在하였 었다고는 認定치않는다 中央軍이 即時大連港을 接收치못한 것은 오로지 中共軍妨害에 因한것이 다 中央政府로서는 中 央政府가 大連의 全管轄 權을 所有하는 것으로 看 做한다

大連港管轄權

中央側所有로看做

【南京卅一日發AFP】

八面鋒

過去에 對한 失敗不滿 이 당을스록再起의 決 意를더욱굳게하고 自省批 判을 더深刻히하야 明 日에對한 抱負와希望을

人事消息

△白麟濟氏 (醫學博士) △金應圭氏 (同) 財團 法人白病院設立人事次 來社

社告

朝鮮新聞協會의 決議 에依하여 新年初의 本紙 發行은 一日付四頁、 二日付와 三日付는 四日付四頁로하고 全休케되였아오니 諒察 하심을바랍니다

一月一日

朝鮮日報社白

三千万의總力發揮

電機·機械專門

鮮榮機械商會

서울市南大門앞

電話本局②八四二七番

京城電氣株式會社

社長 李泰煥

서울市中區南大門路二街五番地

支店 仁川·水原·春川

三八障壁과 南北統一!

南北軍政固定化 統一은우리至上命令

解放朝鮮의 最大의悲劇인 三八線은 우리民族의至上命令인 自主獨立을 하는데있어서 政治、經濟、交通、文化、各部面을通하야 가장深刻한 死活問題임에도 不拘하고 南北을分割占領한 美蘇兩軍의相違된 軍政으로南北은 政治、經濟、社會的政策이 各其別個方向으로 硬化되는데서 우리의本意아닌 別個旣成事實이 南北에서 固定化되며 民族統一의基本方向에 妨害作用을하고있다

同時에 三八線은 世界兩大勢力인 美蘇兩國의 根本的對立이極東에서는 이線을現實的區劃을 定하고있어 三八線은 우리民族의 運命의線인同時에 極東에있어서 世界兩大勢力의 火藥庫가되어있다 解放以來一年半 三千萬의念願인 南北統一은 이와같은 客觀的事實과 南北別個政策의 固定化로 日益鐵壁化하는데 우리는果然如何한 方面으로 이難課題를 遂行할수있을까? 分裂과混亂의 지난해를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各政黨及社會團體의抱負를 들어보기로하자

南北代表는連絡해서 美蘇에自體力量을表示하라

靑友黨 宋重坤

모스코三相會議에서우리臨政樹立에 對한決定을본지도 一周年이지났고 美蘇共委가 休會된지半年이넘도록 續會에 對한 進行도보이지않고 있음은 美蘇兩國이 朝鮮問題에對하야 無誠意하다고 非難하지안을수없다 모름즉이美蘇兩國은 直接的인自己問題가 안이고 弱少民族인 朝鮮問題라고할지라도 너무 無誠意한態度를 버리고 解放國家로서 先進國家로서의 責任을 다하는 意味에서 하로速히 共委를續開하며 駐屯軍의 撤退로 萬苦의根源인三八線을 解消식혀주기를 要望하는同時에 우리民族으로서는 이悲慘한現實을克服하기爲하야 一大反省이있어야할것을主張한다

自主獨立이라는것은自體의힘으로만可能한것이다 外國의援助를밧는限 自主獨立이라고 할수없는것이다 美蘇共委는아직언제열닐는지도 모르고 再開된다고하여도 반듯이成功하리라고만볼수도 없는것이다 第一次會談과같이 또다시無期休會하지안으리라고 保證할수없는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우리힘으로獨立할길을찾어야할것이原則이다 그러타고하여서國際關係를無視하며 三相決定을 否定하라는말은 않이다 三相決定의實現은 朝鮮獨立의捷徑이다 國際關係를無視하고는存立할수없는것이다 그러마고하여서 自體의力量을 表示하지안코는 共委도 열리지않을것이며再開된다하드라도 成果를 보기힘들것이다 美蘇共委는 朝鮮民族自體가臨時政府를 樹立하는것을 援助하게되어 있는것이다 그럼에도不拘하고 저번美蘇會談에서는 朝鮮人의 意思도도러보지안코 援助者인自己네들끼리만 是非를하다가헤여진보양이니 승거운일이라아니할수없지만은우리民族끼리 贊託이니反託이니하여 分立抗爭만하고 政府樹立을爲하여 一致合力하지못한데 原因한것도事實이다

그러므로 우리는하로밧비 民族相互間의理由없는軋轢을 버리고眞情한同胞들의 總望에應答하기爲하야 南北의民族代表와 團體指導者들은 萬難을 排除하고緊密한聯絡과合作을 圖하여總集結된力量과數로서(모든反動勢力을 排除하면서) 美蘇共委를 促開하며 나아가三八線을消滅시켜야할것이다 우리들의鞏固한決意와 果敢한行動압에는 三八線도消滅되고 難產의南北統一의臨政도 樹立될것이다

產業再建과敵產 管理權을朝鮮人에移讓하라

朝鮮產業建設協議會 河允道

帝國主義日本은過去三十六年間 朝鮮에、野蠻的인殖民地政策을 强行하야朝鮮으로하야금 그들에게必要한原料와勞働力을供給식히는 同時에그들의商業市場化에全力을 傾注했으며一便으로는朝鮮의 全經濟界全生產手段을掠奪獨占해왔음으로 全朝鮮產業經濟의九十六%는 日人의所有이였든關係上이敵產이名稱을쓰게되였다。

經濟的獨立이없는곳에完全한政治的獨立이있을수없는것은 일즉侵略日本의傀儡政權이였든 滿洲國의例가있으니 敵產處理와運營方法如何가朝鮮의 完全自主獨立에至大한影響이밋일것은 勿論이요產業再建이絕對的關聯性을가질것도 再言할必要도늦기지않는다。

大體朝鮮內敵產은元來日人이 本國에서持來한것이않이요 朝鮮民族의膏血을强徵剝奪結晶體인以上當然히朝鮮國家의所有인同時에朝鮮民族의所有일것이지決코 名目만이日人의所有라고해서內容도그렇하고할것은 不當할것이다。

萬若同財產을外國人의손에넘긴다는事實이생긴다면現在朝鮮은 民族과國土만가지게되는「필립은」朝鮮일것이요 殖民地現象의朝鮮의再現이될것이다。

그럼으로 朝鮮의完全自主獨立을忠實히援助한다는 聯合國으로서는 爲先朝鮮民族이 經濟的으로 獨立할수있는 方法을講究해주어야할것이요 朝鮮民族의全生活手段을剝奪하는方法으로는 朝鮮의自主獨立에援助할理萬無할것이다。

그러나 朝鮮內敵產이 對日賠償의對象化한다는것은 强奪되였든 朝鮮의金國土를 敗戰日本으로부터引繼받는 한部分的財寶로 說明할수밧에없으며 이것은 平和를愛好하고 國際侵略을防止함에成功한 戰勝聯合國의戰爭目的에違反되는것을 指摘하는同時에 此에絕對로反對하며 聯合國은 朝鮮이完全獨立할때까지、朝鮮內敵產을保護管理할수는 있지마는 賣買處分을하거나 或은自國으로 移轉하는것은 國際法에 違反되는行爲이다。

그러니敵產處理는 朝鮮臨時政府가 樹立되여經濟政策이確立되는때를 아 그方針이 비로서決定될問題이다 그러면臨時政府가 樹立될때까지 敵產은 如何한方法으로運營할것인가。

一、企業經營에 있어서 사람의問題는 가장重大한것이니 名譽과熱誠으로되는것도아니요 謀利的野心이나 一時的虛慾으로는 到底히不可能할일이니 管理人中不適當한人物은 排除하고良心的이고 愛國的인同時에企業的手腕을가진 人士를 選擇하여適材適所로再配置할것이며 管理人은 一官吏의心境으로 그리고善良한 管理者의注意를가지고 어데까지든지新朝鮮產業復興을爲하여 敵產을管理해야할것이다 敵產管理權은全面的으로 朝鮮人에게委讓하여 不必要한干涉을떠나 管理人으로하여금 自由스러운環境에서 全技能을發揮하여 運營케할것이다

二、解放以後 各產業機關의 從業員들은日帝殘滓要素의 最後發惡인計劃的破壞工作에 對抗하여惡戰苦鬪하면서 各自의職場을 死守해왔으며그職場이야말로 自己들의所有인同時에 新朝鮮國家의所有라고 確信하면서今日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各職場은管理人과 從業員의 連帶責任으로運營에 當케하여 損益에對해서는 共同責任을지게하는 責任共同體利益共同體를 實施할것이며 管理人은 從業員의生活을 保障케하는同時에 純利益의三之一은 國家又는 資本主에게 三分之一은 從業員에게 남어지三分之一은 缺損補償金으로 積立하는것이 妥當할것이다。

三、資金 問題에있어서는國家가 生產運營을必要하다고 認定하는生產機關에 對해서는 管理人의經營管理가 適切했을에도不拘하고 純全히不可避한客觀的인 原因에從해서 생기는 赤字는國家補償制를實施해서이方面에 手苦는없이 一路生產增强에 邁進케할것이다。

四、技術面에있어서는 現在眞空狀態에가까운技術部門이니 現在技術者의適正再配置를 時急히斷行하고 必要한部門에는 外國技術陣의援助를要請하는同時에 科學技術敎育을 劃期的으로擴張하여 徹底한職場敎育 職場이 硏究室이되고 敎室이되는 新制度를實施하여 晝學夜勤하든지 午前、午後로는 硏究와勤勞를 倂行케하는것이 좋을것이다。

五、生產한生活必需品은强力한統制를 實施하여一公定價格으로生產地에서 直接消費地에配給하고 生活必需品以外의生產品에도 配給制를實施하야 中間商人을 排除하고 各地에 公設配給所를 設置하는것이 좋을것이다。

以上의條件을 實施하는方法으로 各層各界를總網羅하야 敵產運營委員會를 組織하야 敵產의管理運營權을 이委員會에 移讓식혀敵產의育成指導와 物資配給그리고融資의 斡旋等을協力케할것이다 產業이發達치못한나라가 富하고强할수없는것은 中國과印度의例가있으니 三千萬民族의 唯一한念願인完全自主獨立에 達成하야富하고强한 朝鮮이되려면첫재經濟的으로 獨立할수있는 朝鮮이되지않이하면 않이되겠다。

여기에는 急速히工業을發達시켜 朝鮮에서生產치않는 原料그대로外國에서 輸入해서朝鮮사람이쓰는 物品은 全部朝鮮內에서 生產할수있는自給自足的經濟體制를樹立하지않으면 朝鮮은結局外國商品의 市場化하게되여 再次殖民地朝鮮으로 轉落하고말것이다 無限한 電力과豐富한地下資源을가진 朝鮮產業界는 今後洋洋한 前途를能히期待할수있으며全產業經濟의大部分을占領한敵產處理와運營如何는重大한政治問題를內包하고있는同時에 產業朝鮮의再建에絕對的關聯性을갖이고있는것이다。

『얄타』密約破棄않고 南北統一은不可能

韓民黨 咸尙勳

元來三八線의 設定은 一九四五年二月얄타協定에서 美蘇兩軍이 日本軍을 降伏시키기위한作戰的 必要로써 그軍事的擔當區域을 作定한데 不過하였거니와 그後一九四五年十二月莫府三相決定에依하야 蘇聯의發言權이 極度로强化하였다 蘇聯과 朝鮮의獨立을 規定한 카이로宣言에參加한나라도 아니오 포츠담會議에 直接參加하든 國家도아니다 追後포츠담宣言에 參加하야日本에宣戰하므로써 朝鮮이獨立도 同意한나라거니와蘇聯이 最初부터朝鮮에好意를가젓든 美英中에 比하면 朝鮮으로서는한거름 먼因緣을가젓다않을수없다 實際日本과戰爭한 日數로보드래도數三日에 不過했든것을 記憶하지않으면 않된다 그러므로 美英中이 蘇聯으로하야금 美蘇를 對等하게 發言權을 認定한것은 錯覺이라않을수없다 果然 美蘇共同委員會에서 蘇聯은 信託反對者를 臨政樹立하는 協議會에參加치말게하자 主張하였고 그것이 不容되매 歸還하고말았다 今後美蘇共委員會의 再開는期約하기困難하다 何故오하면 美蘇는三相決定의 解釋에對하여 意見의相違를 본때문이다 그러므로 設使美蘇共委가 續開된다할지라도 三相決定에對한 解釋相違 政府에參加시킬政黨及團體의意見相違等으로 圓滿한解決을 볼것으로생각되지않는다 그러므로 朝鮮의獨立은 美蘇三相決定의 信任條項에關한修正과얄타協定의破棄가없이는完全을期하기 難하며三八線의撤廢와 南北의統一도不可能할것이다。

나는三相決定에있는信託統治를贊成하는與否를 人民投票에問하여決定하는 時期가있을것을 豫想한다 그러하여 即時獨立을希望하는 民意가 勝利하면 그結果에依하여三相決定이 修正되고 南北을通한 統一政府가 樹立될날이올것을 期待하고있다。

南北은會同하자 方略보다民族的良心으로

韓獨黨 嚴雨龍

韓民族의完全解放과完全自主獨立을中心으로 民族統一은 韓民族의絕對的任務이며 民族的任務를爲하야 어떠한方法으로든지達成하여야할것이다 國際的制約으로不得已三八線이란鐵壁이 있으나 이것으로因하야 우리民族 스스로가障壁을 지어서는 않될뿐아니다 도로혀 이國際的障壁을 우리民族의一致團結로써 打破하지않으면 안된다 이民族的一致團結이란 決코三八以南만으로나 或은三八以北만으로의 意味로 認識하든지 또認識할수도없는일이요 南北의完全統一을 말하는것이다 이南北統一을完成하기爲하야는 모든個人의主義思想을며 나는全民族的 派의利害를떠나 政黨利害에서 小巢를버리고 大同하여야할것이다 〈데없는感情論이나過去의功罪論은絕對의禁物이요 오직獨立戰取와國家完成을爲하야一切의自我를 放下하지않으면않된다 우리의信奉하는政治理念이나主義主張도모다獨立國家完成이없이는實現不可能한것은理論보다도 世界的現實로나우리의 지나간산經驗으로알고도남음이있다 이것을要約하면 아래와같은것으로 간으로急速히南北이會同하야意見을疏通하고 互讓和協하면반드시民族統一의謀業을達成할수있다고생각한다

一、感情을超越하자

二、政治的理念이나主義主張을暫時一擲하자

三、政治的方略보다는民族的良心을찾자

三相會議決定을 早速히履行해야만

南勞黨 金桂林

臨時民主主義的政府를 獨立하고行政經濟、交通等全般에亘하여 一元的으로運營할수있게되지않고서는三八線은 撤廢될수없고 眞實한南北統一을 期할수없다 그러므로 우리는三八線을撤廢하고 南北을統一하는意味에서도 南朝鮮의軍政의强化乃至延長을齎來하는 立法議院과같은 一切의政治的企圖에對해서 絕對로反對하는바이며 더구나南朝鮮單獨政府樹立의陰謀와같은것은永久히南北을兩斷하고實質에있어서 三八線을鞏固持하며는 背族的行爲이다 그러므로 우리民族은 三相決定을支持하고 聯合國은 迅速히 決定을 完全히 實施해주기를 바라는바이다 다시要約해말하면 眞正한 民主主義的政黨과社會團體의擴大强化에依하여 臨時民主主義政府를樹立하여야만 南北統一을完全히될수있고따라서 三八線問題도自然解消될수있는것이다

三相決定實踐

社勞黨 高哲宇談

南北統一이란 결국三八線이문허진다는것이므로 同一語이다 南北統一이完遂되는 唯一의길은 莫府三相會議決定이朝鮮에正當히實踐되는外에는없다 그러므로우리는 모든힘을 이實踐에集中하여야할것이다

金剛電球株式會社

本社 서울市中區忠武路二街三四 電話②二三三番 一四八〇番

第一工場 서울市城東區上往十里洞七五 電話⑤二六五九番

第二工場 서울市中區山林洞一六二 電話②六二二五番

第三工場 서울市城東區新堂洞四〇九 電話⑤二二四一番

株式會社 和信百貨店

民族的熱意로新建設에

東洋紡績公社 支配人 崔光源

京城紡織株式會社 取締役社長 金容完

서울市中區南大門路一街百十六番地의壹 代表電話本②八一二五

近代思想의 先驅者 燕岩朴趾源 七

서울大學敎授 金聖七

洋草를피이고 洋酒를 마시는것을 조콤도부끄럽게 너기지않는 사람들이있는가하면 거리에는호콩이넘처흐를 지경이고 시골구석구석에까지캔디ㅣ가 번지어서어든아이할것없이조선사람의 굶주린 味覺을 刺戟하고 있다。대체 이러한 물건들은 무엇으로 바뀌오는것일까。우리들의 살림자리엔 모든것이 不足해서 大多數의 同胞들이 헐벗고 굶주리며 많은 建設資材가 時急히 必要한 때에 하필군것질할것을 사드려오는지 생각할수록 한심한 노릇이다。설마 이런짓을 해서

利益

을 남기려는 장사치나 이런일을 말아보아서 제地位를 保全하려는 벼슬아치들은 우리겨레중에 한사람도 없으려니와 하고 믿기는 하지만 그때도 아무런 생각없이 이런것들을 달게 받아 먹는 자리의 형편을 도라볼때 저욱이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수없다。그러나 이러한 격정을 내가 비로소 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으로부터 一百六十年前에

燕岩

朴趾源先生이 當時의 우리나라와 淸나라와의 貿易事情에 關해서 다음과 같이 말슴하였당。

「우리나라에서 쓰는털모자는 이곳(中後所)에서 만든다고 한다。그 工場이 셋이 있는데 각기 數十間이나 되는 넓이며 工人도 百名을 내리는곳은 없다。工場마다 義州商人이 그득하니 그들은 모다 도라갈때 자가지고 갈 모자를

豫約

하기 위함이다。帽子를 만드는 법은 아주 쉬운 것이어서 羊毛만 있으면 내손으로도 곳 만들수있을법한데 우리나라에선 羊을 길으지 않기때문에 백성들이 羊고기를 먹을수없을 뿐더러 全國의 數百萬으로 넘는 사람들이 겨을마다 쓰는 모자를 남의나라에서 사다쓰게 되는것이다。冬至行使과 曆行(賚咨行)等使節의 가저가는 銀이 해마다 十萬兩을 넘을 것인즉 十年을 치더라도

百萬

兩이 된다。이 많은 돈으로 자오는것은 털모자이며 그 털모자는 한겨을 쓰면 헤어저서 내어버리는 것이다。千年을 가도 석어 없어지는것이 아니며 항차 山에서 캐어내는 한정있는 물건을 한번 가면 다시 도라오지 않는 外國에 가저가서 한겨을쓰면 내어버릴 모자와 바꿔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되요」(熱河日記卷三馹汎隨筆、燕岩集卷十二賀金右相履素書別紙)

이는 當時 淸나라에 銀을갖이고가서 털모자를 사다쓸을指摘함이다。文中에 冬至使行이라한은 이른바 朝貢使節로써 實質的으로는 해마다 一定한額數대로 이쪽의 特産物을 가저다주고 賜豫란名目으로 그 報償을 받아오는 貿易使節이였다 이런國家間의 公式貿易以外에 使臣과 그隨員(正使以下從事官等三十名)은 八包란이름으로 각기身分에따라 二千兩 乃至三千兩의 銀을가저가서私貿易을 할수있었다 官員들은 대개 이

貿易

權을 商人들에게 팔았으므로 灣商이라고하는 義州商人들이 使行과함께 北京을 드나들면서 對淸貿易을 말아보았다 그들이 해마다 들잡아도 十萬兩의 銀을 가저가서 다른물건도 사오긴하지만 그중에도 털모자를 많이 사왔다고 한다 장사치들은 이貿易으로 해서 이문을 남길수있다해서 좋아했을는지 모르나 燕岩先生이 보기엔 조선사람이 쓸모자를 만들기위해서 中後所에큰

工場

이 셋이나 있는것이 이상한일이 아닐수없었다。이조선서도 羊을길러서그털로 모자를 만들기로하고 그 고기를 먹기로하면 좋지않으랴。그는이를熱河日記에서 强調하고또 當時의 右議政金履素에게進言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封建時代의 여니短見者들처럼對外貿易을否認하는鎖國論者가 아니였고 機會있을때마다 조선의 가난의病原은 수레가

國內

에 골고루通하지않고 배가 外國에 별리나다니지않아 物資가 流通되지않기때문이라고 거듭指摘한 當時에 있어선 드물게볼수있는 通商貿易의 積極論者였다 다만 私利에 汲汲하여 國家經濟의大計를 그릇치는 亡國的貿易을 警告함이었다。이와같이 조선은過ㅡ의對淸貿易에 있어서 燕岩先生의 이른바「銀山有限之物」인 銀이 탕거나 저다주고 그대신 털모자와 각색비단을 바꾸어오는 잘못을되푸리하여서 마침내 國家經濟를 極度의貧血狀態로이끄러 亡國의重大한素因을 지었다。이제 조선이다시 國際貿易의 一環으로 새出發을하려는 지음에 옛날의 過誤를 거듭하는듯한 느낌이 없지않아서 燕岩先生의 警告를 다시금 想起하는바이다。

燕岩朴趾源先生은 英祖十三年(一七三七)에 나시어 純祖五年(一八〇五)에 도라가신

近世

의 大學者로써 그가 正祖四年(一七八〇)에 使朴明源을 따라서 北京과 熱河를 갖다와서 지은 熱河日記二十六卷은 朝鮮漢文學의 最高峰이라고 일커르는바이다。그 文體는 일즉이正祖께서 經筵에서 南公轍을 보고 「熱河日記가 세상에行하여진후 뭇 文風이 一變하였다。」고 하였으리만치 新機

諷刺

軸을 지은것이었으며 그 內容은 憂國經世의 大文章이었다。그 紀行文으로써 이처럼 그 觀察이 銳敏하고 그 立論이 雄健한 古今東西에 그 匹儔가 드물것이다。

그는 虎叱文과 兩班傳 擬請疏通疏等에서 當時의 封建思想과 封建制度에 대해서 果敢한 挑戰을 敢行하였고 馬駔傳、穢德先生傳 廣文傳等을 지어서 當時의 封建世相에 對하여 辛辣한 諷刺를 거듭하였다。그러나 그의 挑戰과 諷刺는 決코 挑戰과 諷刺에 그치는것이 아니고 革新과 建設에의 熱烈한 意慾이 그의 文章의 主流를 이룬點을 우리들은 特히 注意하지 않으면 않될것이다。熱河日記에 대해서 다른機會에 更論코저하거니와 그의 文集은 凡常한書札과 記序의 斷片에 이르기까지 그의 國家와 民生을 걱정하는 丹誠과 새 社會建設에의 큰 經綸이 숨여보이었다 「答丹城縣監李侯論賑政

熱願

秩序에대한 希求라면가 「北學議序」(卷七)에서보여준民族更生에대한 熱願이라면가 「限民名田議」(卷十六)에보여진土地改革의 私議같은것이그端的인例이다。

燕岩은 그文章에 있어서나 그思想에 있어서나 偉大한 革命家였다。그는 조선에서 近代市民社會의理念을 首唱한 분이고 또 그唯一한 慧星的 存在였다。이러한 意味에있어서 그는 近代思想의 先驅者였고 또 조선의 病弊를 골고루 들추어서 그匡救策을

眞摯

하게 考究하였다。우리는 燕岩을 通하여서 近世朝鮮社會 沈滯의 原因을 바르게 把握할수 있을것이다。그 病原은 外來資本主義의 洗禮를 받았어도 우리들의 社會에 뿌리깊게 박혀있어서 朝鮮의 後進性을 再生産하고 있다。이를하루바삐 止揚하고 새朝鮮의 힘찬 出發을 위해서 燕岩研究가 時急히 要請되는바이다。

歸去來兮胡不歸

朴鍾和

臘前三白 수근한 눈이天地에가득하다。하늘은 아직도 朝鮮民族을 버리지는않으려나보다「來年은 또다시풍년이들려나보이」하는 한가닥 푸군한希望속에서 새해를 마지한다 하기야 질거운 새해라면 좀더 조흐랴 떡도치고 술도 걸너서 祖上을追慕하야 敬虔한 茶禮를 올린뒤에 故舊를 서로찾고親知를 맞이해서 가득한希望과 질거운祝詞로 새해인사를 주고받은뒤에 떡국에 수정과와歲酒를기우면만 쓸쓸하다 거리에는 떡 처는소리조차없구나。

◎

昨年 이때에는 託治의悲報때문에 겨레는 한맘한뜻이 되어 痛哭을 하며 撤市를 하며 工場이 쉬고 學校도문을다덧다 朝鮮獨立萬歲를絕叫하며 거리거리 憤怒의눈동자와 어굴한 高喊으로 獅子처럼부르짓고 범처럼뛰였다 一致團結一無形한 民族의 至上命令이 이곳에 베렸든때문이다 너나할것없이 脈搏속에는 朝鮮사람의 끓는피가 그대로뛰였든것이다 허나이것을 契機로 하여 朝鮮사람의 마음은 두갈래로 나누게 되였다 支持하자는派 反對하는派 기막힌일이다 이것은 누구의命令이냐? 合할수는 없느냐民族의至上命令으로 다시 돌아올수는 없느냐 흐르러지면 힘이弱하고 뭉여지면 힘이强한것이다 다시 뭉처오너라 八月十五日의그瞬間으로 돌아오너라 얼마나 거룩한 조선사람의 마음이였드냐 얼마나純粹한 朝鮮사람의 脈搏이였드냐 어데 그때에야 네가있고 내가있었더냐 謀利輩가 있고 政治뿌로커가 있었더냐 我田引水만을 꺼는 政黨이 있었더냐 새해 勞頭에 부르짓노니 朝鮮사람아 도라오너라다시 八、一五의 마음으로 도라오너라。

○

어제가 옛날이란이世上에 昨年일을 찾는다는 것은 더한층 어리석은 소리다마는 解放直後에야 진실로 解放이된것같았다 고기 한斤에十五圓 쌀한말에 三十圓 洋襪한켜레에 三圓四圓 지금엔 어떠하냐 쌀한말에 五百五十圓 고기한근에 一百五十圓 洋襪한켜레에 九十圓、百圓 이기막힌民生問題를 어떠케 解決해야하느냐 누구의 罪냐 아아 누구의罪냐?人民은 어떠케 살란말이냐 十

朝鮮億百億 休紙장가튼 조히만 백여내니 사람들은 어떠케 살란말이냐 이때도 뭉치지 못할때냐 이때도 團結이 못될때냐 이 疲弊해진 人民의 마음과 生活을 將次어찌할데냐 痛哭하고싶은 마음 새해를 맞이하여 더한층 뼈앞으게 懇切하구나。

○

雪怨凍熯에 친구가 그리웁다 倭人總督의 苛酷한 壓迫밑에 붓이 있으나 쓰지를 못하고 글이 있으나 自由롭게 發表를 못하던 詩人과 文人들 ㅣ解放을 맞이했으나 얼마나 질겨웠겨나 눈만 감으면 나타나는 친구들의 모습과 모습、진실로 손을 맞잡어 일하고 싶었다。

이미 解放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서글푸게 他界로 돌아간 모든 親舊들은 幽明이 다른지라 歎息한들 소용이 없다마는 當然히 손을맞잡어 질거웁게 이약이하고 함께 激勵해야할 여러친구들이 갈려졌다。그대로 南北으로 한편지 씀직도 하련마는 아득히 消息조차 알길이 없구나。蘭草를 보내주든 친구、水仙花를 보내주든 친구、梅花를 보내주든 친구、大小由之萃를 보내주든 친구들의 모습이 明窓淨几에 나타난다。하나씩 나타나다。그가 그른것도 아니요 내가 그른것도 아니다마는 각기 朝鮮民族을 위하야 文學을 樹立하자는것은 그러나 怪常한것은 人消이여서 主義가 조금 달라젔다고 面對하기조차 꺼려하다 가슴을 헤치고 손을맞잡어 따듯이 한바탕 이야기하면 어름 녹듯 봄눈 슬듯하련마는 그것조차 어려운 모양이다。

丙子胡亂 기막힌 國難을 當했을때 斥和派의 巨頭 淸陰金尙憲先生과 主和派의孤臣遲川 崔鳴吉先生의 생각이난다。위에서는 南漢重圍에 빠진지 月餘 밖으로 救援兵의 消息은 끈어지고 안으로 山城에는 糧米가 떨어저서 絕大지경에 이르렀다。이 판에 十萬胡兵을 거느린「홍타시」는「爾欲生耶아 宜函出城歸命이요 欲戰耶 宜函出一戰하라 兩兵이 相接이면 上天이 自有處分矣」라하고 最後의 肉迫하는 咆哮를 버렸다。슬푸다 宗廟와 社稷은 風前의 燈火요 萬百姓은 釜底의 魚肉이였다。이때 主和派 遲川先生은 萬難한 斥和派의 衆論을 排斥하고 備局에 앉어서 昂然히 稱帝하는 答書를 썼다。밖에서 이 消息을 들은 淸陰先生은 憤然히 備局으로 뛰여가 白眼으로 遲川先生을 흘겨보며 國書抄를 북북 젓었다 그러나 遲川先生은 걸걸웃으며 「大監은 젓으시오 나는 암만해도 주서야겠오」하고 태연이 짖어진 國書抄를 주어모아서 풀로 붓쳤다。마침내 百代의 씻지못할 屈辱이 있고 淸陰先生은 八十高齡으로 瀋陽牢獄의羈縲의 몸이 됐으나 抗義不屈 初志를 굴피지 아니했다。허나 遲川또한 本心이 辱國하려는데서 나옴이 아니요 一時의 兵禍를 避하려는 때문인지라 終末에 역시 淸陰과 함께 한 獄속에 가치게 되니 비로소 淸陰先生은 遲川을 許諾하여 「從尋兩世好하야 頓釋百年疑」라는 詩를 遲川에게 주었고 遲川은 淸陰老에게 「湛氷이 俱是非요 裘葛이 莫非衣」라는 詩를 和答했던 것이다。저와내가 다같이 一鼕의 私心이 없이 朝鮮民族을 爲한다는 主義라면 무엇을 탄하고 忌避할까닭이 있을까나? 모든 親舊를 다시 한번 따듯이 하든 손잡고 만나 八·一五直後의 날로 도라오려무나

祝願

가람

自由와 平和로움을
굶주리는 오누들아
발톱 털끝 까지
그 힘을 다 드리어
새해로 새로운 世紀를
하루 바삐 지어라

口中殺菌劑 高級齒磨粉 製造本舖 香丹菊心
大森工業株式會社
電話光化門③五五九番
取締役社長 李康世
專務取締役 金允培
常務取締役 青圭哲

朝鮮車輛株式會社 京城支店
支店長 吳時泳

泰昌工業株式會社
泰昌織物株式會社
取締役社長 白樂承

社團法人 朝鮮損害保險協會
大韓火災海上保險會社
서울火災海上保險會社
新東亜損害保險會社
朝鮮火災海上保險會社

運輸·倉庫業
株式會社 朝日組
社長 金炳哲
支配人 李弼榮
서울市西大門區萬里洞一街四一番
電話本②2150·2156—9·3795番
支店 仁川·永登浦·釜山

서울市西大門區西小門洞四二番地
高麗醫藥品衛生材料株式會社
電話光化門③ 九二六 一八三〇 一八二三番

朝鮮海陸運輸株式會社
서울市中區東子洞拾貳番地
電話本局五一〇一番

圖書出版 宣文社
서울鍾路一街六二番地
電話光化門③三四七二番

서울市中區蓬萊路
精米所設計 東和機械商會
電話本局 二七九一 四六九二番

前途多事한立議

新春맞어本任務達成에

구랍十二일 개원을본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은三十일로서 제一회六차회의를거처 원법을대체로 통과시키고 휴회로들어가해를넘겨一월六일에 재개하기로되었다 미군정이조선사람의손에 행정권을넘겨주어 핍박한 남조선의민생문제 사회의당면한여러 문제를조선사람의손으로 해결시키고 군정은다만배후에서 고문하여가면서 막부삼상회의결정에 의한 조선임시정부를세울때까지 남조선의질서를 누구보다도실정을 잘아는 조선사람으로서 유지시키자는것이 이입법의원 창설의근본 취지라고하겠다

입법의원과 아울러생각할문제에 좌우합작과남북통일이있다

三八선을경계로 미、소양군에분할점령을당한 조선의정치문제는 크게는밖으로 미、소두나라를비롯한연합국의 의사에좌우될이절대함은물론이지만 한편구심적(求心的)으로는 갈려져있는좌우와남북을어떻게통일합작시키느냐는것이또한이명에서온의되며 운동으로일어나지않을수없는것이다전후여러달에걸친좌우합작문제는 그가 입법의원을산출하려는준비공작은아녔다하더라도 깊은관련을가진것만은사실이다 좌우합작이좋은 성과를거두지못하여 우익과 좌익의극一부분중간파를가지고 과도입법의원을구성하였다

一一八호군정법령이발표되고 뒤이어 입법의원이 생겨나고 원법이 작성통과를볼적에도 한결같이문제되고주의를끌게하는것은 조문해석에서 과도입법의원의사명은(가)임시정부수립때까지 행정의이양을비롯하여 남조선의 민생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잠정적기관이냐(나)이를 연장시켜서 남북통일정부를 산출시키는 데에 있느냐의 어느것이나인가 솔직하게말하야 입법의원은 통일정부를 산출하는 모체가 되려는것이다라고하겠다원법의통과를보고휴회로들어간 입법의원은 새봄을 맞이하여 회의로활발이 움즉일것이며 군정청고급관리의정리 민생문제의해결등에 상당히노력할것은 사실이다로상말이엄아 입법의원의수난도 또한큰것이 있을것이니 통일정부수립으로 이소위단독정부의수립 세간의비난은 받지않겠느냐 경제문제사회문제 해결에는 확호한 자신이었느냐입법의원의전도는다난하다 할것이다

頭痛꺼리 浮浪少年

自由半數가 憧憬脫出?

서울명물의하나인 걸식부랑소년들은 지난일년동안 어떠케처리되였는가 서울소년심판소에서는 지난 섯달한달동안 세차례에 걸처서 시청후생부원과 경찰서원들의협력아래 시내 부랑소년을모아 보았는데 모다 약三백명중 절반이상은 범행할염려가있어 녹번리와정릉 소년감화원에수용하였고 남어지는 시청에의탁하여전재민수용소에 수용하였으나 벌서수용소를탈출한소년이 반이상이라고한다 아마자유로 구걸하는것이 배부르고 한결재미있어그런는지모르나 범행성이있는 걸아들을 어떠케 처치할른지 당국의 두통꺼리는 여전하다

戰災同胞새해맞이에

過歲慰問品遝至

서울시내 장충단공원내 약이천명의 전재동포에게 과세、위문품이 답지하였는데 락원동 한성홍업회사에서는 백미열가마를 중무도일가 미락(美樂)영화자에서는 동태、기타국거리감 시가 약일만이천원어치와 종업원하모인금 삼천구백자집원을 동원호소에 기타하여 구술론 전재동포의 새해맞이에 양기를띄우고있다

戰災民救濟에 急速措置要請

援護會絕叫

조선인민원호회(朝鮮人民援護會)에서는당면한 전재민원호문제에대하여 다음같은담화를발표하였다

당국에서는 전재민원호에대하여 허다한계획 축 간이주택신축 자방하천공사 생활필수품배급등에수십억원을 계상하고그실시를 대선전한에도불구하고 하등에선과과없음은 물론주택문제같은것도 적산사찰로 정유확충으로 별서해결할수있는문제를 이엄한기까지 내버려둔듯이 어데있는지 추측할수없다 당국은매일주위와굶주림에죽어가는 전재민을위하여 성의를다하여 급속한조치를하기바란다

民戰서戰災民에 卅七萬餘圓醵出

지난二十二일부터二十八일까지 일주일동안 민주주의민족전선(民戰)에서 거행한 전재동포원호주간의성적은 매우좋은 성과를나타내어 현금三十七만五백五十三원과의류약품기타 물품이산적되어있다한다 동민전에서는三十一일 八十명을동원시켜 서울시내 十五개수용소에이를 배부하였다한다

援護金遝至・

서울전재동포원호회본부에는 매일같이 동포애의꽃다발이모혀들고있어 시내 서대문모일가 최은배(崔銀培)여사는 전재동포에주어달라고이불이십점을기탁 애국부녀동맹에서는 모집금삼천백육원오십전을 성동구신당동 김계수(金桂洙)씨는 삼백원을각각 기탁하였다

首都廳記者會서 戰災援護金寄託

서울수도청 기자회에서는 전재동포원호금이천원을수도청을통해서시청후생과에 기탁하였다

戰災民救濟金 本社에도寄託

시내동자동(舊古市町)에있는 금화기업주식회사(金華企業)에서는 회사에서一만원 동사직원이三천일백三십원을거출하야 전재동포에게전달하라고 작일동사서무과장 김경성(金敬星)씨는 본사에기탁하고갔다

江原道再選代表도決定

강원도의 입법의원재선은 삼십일오전열시부터 도청회의실에서 집행하였는데 다음과같이 당선되었다 △春川 徐商俊 △原州 趙珍九 △江陵 鄭周敎

警察非行調查班新設

強盜、窃盜가犯罪의八割

張總監의新年抱負

제일경무총감겸 수도청장 장택상(張相澤)씨는작三十一일출입기자단과의회견석상에서 지난일년동안의 경찰행적을회고하는 동시에 새해의포부를피력 다음과같이말하였다 지난일년을회고컨대 치안에있어강도 절도등이 약八할、가량이였었고 때로도많이 감소되였으며 조직과체도에 불비하든 점이 많이 정리된것은 동경해마지않는다

특히여러분의편달에힘입는바커서 비민주적과오는솔직히반성하고 친절주간실시 민주경찰고지(告示)의철저에힘쓰는등 민주경찰확립에진력하고있는것은사실이다 새해에는한층더분발하여 민주경찰육성발전을위해서분골쇄신할것을맹서하는바이다 우선 이로선에따라계획한것은 시내각경찰서사찰계에 경찰비행조사반을신설하여 민중의어굴함이업도록 경찰관의비행을 철저히 취체할첬이며 수도경찰학교에 경찰대학을창설하고각경찰서에서 우수한경관을 보내여잠개월간 시민주경찰의 훈련을 치르게하여 재간부양성에힘쓰겠다

救濟金!

十三萬三千餘圓

13日市廳現在

방금전재민원호주간을 실시중인 서울시청후생제二과(厚生第二課)에는 품찬노숙의전재동포를 구해달라고 원호금이 모여들고있는데 三十一일현재 시내열석자회단체에기탁해온원호금은모합십삼만삼천오백삼십이원으로 원호금 모집목

建設의봄 ①

時急한交通擴充

‖刮目할聯合國의日本援助‖

모든건설의 원동력은 전혀운수교통의 정비강화에있는것이다 정치문화 산업경제의 발전향상 개발부흥등 모다이부문의 힘을입지 못하고서는 있을수없는일이다 해방재삼년을맞은 조선의 모든건설이 남부그러울정도로 발전이적고 앞길이 암담해있음은 두말할것없이 이운수교통동맥의 마비경화로인한것이였다 때문에만일이운수교통망의급속한발전 향상이없이 다른 부문의발전과 민생문제의해결을바라는자가있다면 이는실로연목구어(緣木求魚)의격이되고말것이야

◇

우선조선의육상교통에서철도망의현상을살펴보자생필수품을비롯한물자의수송과전국도상에다자한여객의왕래조차기관차와자량의부족으로제한을당하고있고다음으로자리적으로공로(公路)교통망에있어서의단거리화물자동차운행이절대요청되는것이다 그역시차량과까소린의부족으로바랄수없는 형편이다 겸하여해상교통마저유치한터에전면적으로마비상태에빠저가 지금연안각항구간의교통도 못하고있는형편이니 이런상태에서무슨원만한건설이있을수있오랴

◇

지금철도운수에서모자재를찾고 공로운수에서모자재를찾고 행상운수에서도 자재를찾는다조선의경제복흥을위하여필요한건설자재를「크레디트」를통하여 또는기타다른방법으로 조선에수입하게된다든군정청앞오로어찌할것인가그동안은어떤경과이었던가이운수각부문의당로자들은금무엇을하고있는가? 보다! 왜방일본에서는이번연합군사령부의「부러 一만七천여대의「추덕」파「도데ー단」의하를반게되어 전후경제복흥파육상수송의강화를하고있지 않은가그들은이것을가지고벌서모시교통난의 완화와절모수송의보조강화를착작개회진행식히고있다고국회에서소개되고있다

◇

그는아니 그들은연합국사령부의알선으로불인(佛印)에서 매월一만三천톤의 중유(重油)를석탄하고 빗구어들여이것으로서강철 제를발굴한다면 매월약三만톤을증산식힐수있고 석탄을발굴한다면 매월약二十五만톤을 증산식힐수있게된다는것이다 그들은이렇게 연합국의호의와원조밑에 착착재건공작을진척식히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군정당국과 연합국사령부에 정이사실을 조선의현상과대조해서어떻게 보고있는가하는데 대하여커다란불만조차없지않을수없다웨우리는과거에있어서산업경제모든건설과재산을일본에착취당한피해자국이며연합국의 힘으로해방된국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오늘날전실애나타난연합국 사령부의태도는 조선보다도일본에치중되고있는 까닭이다일본은연합국으로부터모든건설의 동력이되는운수자재가벌서 획득됨수있는가 우리는날로위축해가는 우리의산업경제를위하시한각방면의건설을위하야 절식상태에가까운민생문제 해결을위하야 하로속히 이운수교통의정비강화를 우선적으로실천해야할것을강조하는한편 당국의에대한구체적 대책이급속히수립될것을 바라마지않는다 (P記者)

色鉛筆

이상은 먼곳에 있을수있고 또그러함이쉬원내한자업의길이라고한것이다 삼천만은언제면 가까운곳에 있는것、적은것부터 착수함이요견일것은 일측이옛어른들이 가르처준바이다 우리는 지금당면한 모든혼란과곤경을 보고그이유가국가독립못된데있음을웨치고만있지 않은가할더니우리는무엇부터어떠케할것인가하는것은생각지못하고있는듯싶다독립의 목표는 원대하다 반듯이 대해야한다 장구한계획을 세워야한다 ▲그러나 명일의독립을위하야 한일은높고 먼하늘만처다보고 허풍지동합할것이아니라 그날 그날의 자신의할일을 하낫식을 해나갈것이다 결고잊어서않된것이다 해방게삼년초하듯날 이린것은생각한은듯없는 일이아닐것이다

曆 一月一日(水曜) 陰十日 干支庚辰 ▲日出 午前七時四八分 ▲日入 午後五時二五分 ▲月出 午後○時五七分 ▲月入 午前○時四三分 ▲滿潮 午前一一時四五分

【라디오】【晝】一一・四五家庭時間새해를마지하여 △一二・○○家庭科學【夜】五・○○時報ニュース △五・三○어린이時間새해마지 △七・四五民主義院時間 △八・○○放送劇 △八・三○雅樂 △八・四五合唱

새해엔 새정신으로

加平

加平郡廳職員一同

京畿道食糧事務所 加平郡出張所職員一同

加平郡北面事務所 職員一同

加平面事務所 職員一同

加平警察署職員一同

京畿道有林加平事業所 所長 林圭鎬 外職員一同

加平金融組合職員一同

加平明倫公立國民學校 職員一同

加平郵便局 清平郵便局

加平郡加平面邑內里 濟世醫院 院長 李康文

京畿道貨物自動車運輸事業所 加平出張所長 鄭道翼

加平郡加平面邑內里 三平醫院 加平公醫 尹起湖

加平面邑內里 加平商會 金奎明 電話三○番

加平郡雪岳面 職員一同

加平郡外西面事務所 職員一同

加平清平公立國民學校 職員一同

加平郡外西面清平里 洪翼杓

加平郡上面事務所 職員一同

上面公立國民學校 職員一同

加平郡上面林草里 嘉陵商會 韓永洙

加平郡下面事務所 職員一同

加平郡下面 羅相鉉

加平郡下面縣里 安英淳

加平郡北面濟寧里 林憲鎭

加平郡北面沐洞里 閔鳳周

加平郡北面沐洞里 朴龍錫

加平郡北面梨谷里 姜泰賢